

영광군, 인구 5만4000명 회복 '눈앞'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출산정책 추진 효과 올들어 출생아 407명...전남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아

영광군의 인구가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출산정책 추진에 힘입어 5만 4000명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9월말 기준 결혼출산 통계자료에서 영광군은 지난해 대비 결혼은 45명, 출생아 수는 10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영광군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총 5만3911명을 기록했다.

올해 9월말까지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는 407명으로 전남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1.82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 증가율(0.28명 증가)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영광군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영광군은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최고 35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하는 등 전

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통해 전입 장려금을 지난 7월부터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다.

지역 기관사회단체와 체결한 인구감소 극복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청년드림업 321 프로젝트',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정착을 돕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인구·출산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회복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전체 주민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군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범군민 초청 인구 심포지엄에서 펼쳐진 인구 비전 선포식 퍼포먼스 모습. <영광군 제공>

무안 일로읍 못난이미술관서 '못난이 축제' 열린다

영산강변 마을 이색문화축제 지역 예술가 참여 문화공연 관광 상품화 가능성 타진

남도의 젓줄 영산강변 시골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색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무안군에 따르면 오는 26일 일로읍 청호리의 우비마을 못난이미술관 일대에서 '못난이 축제'가 열린다.

'세상을 떠받치는 못난 그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이번 축제는 '못난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 지역 예술관공 콘텐츠에 대한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 관광객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축제이자 지역 예술인과 협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못난이 파티의 전국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즉석 못난이(음치) 노래자랑, 못생겨도 몸에는 좋은



'못난이 축제'가 열린 일로읍 청호리 우비마을 못난이미술관 전경.

못난이 먹거리 등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한다.

1일 못난이 체험, 에코백 스탠실 체험, 못난이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인다.

파티를 준비 중인 일로읍 우비마을 김충기 이장은 "영산강을 끼고 있는 우비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못난이미술관과 못난이 동산이라는 이색적인 자원이 있다"면서

"이런 자원을 통해 조금씩 문화와 예술이 있는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못난이미술관을 운영하는 김판삼 작가는 "이 시대의 못난이들이 많이 오셔서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삶의 활력을 얻어 가시면 좋겠다"며 "이번 파티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지속해서 못난이 파티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함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장려금 22억원 지급

함평군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생산장려금 22억7800만원을 올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2008년부터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0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2억7800만원의 생산장려금 전액을 군비로 지원키로 해 농가 소득감소분 보전과 친환경농업 장려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올해 생산장려금은 인증품목별로 차등 지급한다.

ha당(인증면적 기준) ▲과수 190만원(유기), 100만원(무농약) ▲채소·밭작물·특작 170만원(유기), 90만원(무농약) ▲벼 150만원(유기), 70만원(무농약) ▲임산물·조사료·기타 90만원(유기), 40만원(무농약) 등이다.

신청기간은 11월15일까지며 생산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친환경 인증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신안군, '생활 SOC 사업' 선정 국비 62억원 확보

지도읍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추진

신안군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가 지원 하는 2020년 생활 SOC 사업에 선정돼 국비 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프라(사회간접자본 SOC)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총 87억원(국비 62억·군비 25억) 규모의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

'지도읍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비금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이다.

지도읍 체육·문화·복지센터는 신안 북부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반달곰의 '반달'과

'비(碑)'의 합성어) 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다함께 돌봄 센터를 포함한 복합형 통합체육시설로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비금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상대적으로 체육 기반시설이 취약한 비금·도초권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계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2021년까지 완공한다.

신안군은 생활 SOC 사업과 별개로 '암태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안군 보조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 사업' 등 체육 분야 4개 사업에 국비 43억원을 확보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45억 투입 명품길 조성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한전 전봇대 전선지중화 등 병행

함평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포함 총사업비 145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함평읍 중앙길 일대 도심주거 기능회복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한우 테마거리 조성 위한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운영, 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내 부족한 공동체 공간을 공급해 어울림센터, 교육창업 거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80년대 함평 대표상권이었던 함평읍 군농협사거리부터 구한전구간인 함평읍 중앙길은 인구감소와 접근성이 떨어져 이 곳 일대 기관들이 하나둘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일방로가 지정되면서 차량통행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가활성화가 되지 않은 채 빈집포율이 늘어나는 등 쇠락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 곳 활성화를 위해 '함평천지, 한우, 나비, 국화축제와 만남' 이란 테마로 함평읍 중앙길을 비롯 가각리 일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와 군비를 포함 145억원(국비 87억원, 지방비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함평읍 중앙길 일대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이전하는 교육지원청 건물물 리모델링해 주민공방교육, 예술작소, 청소년동아리, 공동육아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류거점 복합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테마거리조성, 게스트하우스, 나비 카페운영공간 마련 등 지역자산 특화를 통한 상가활성화 및 주민공동체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8년 지역개발공모사업으로 확보된 60억원 중 48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해 주차장등을 조성하고 한전과 각각 6억원씩 투입해 총 12억원을 들여 일방로 구간 한전 전봇대 지중화 사업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도시뉴딜사업과 연계한 LH 공동주택(48세대) 건설 등 함평읍 일대에 총 56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함평군, 한우 등 농·축산물 활용 직영 식당 오픈

함평군은 로컬푸드직매장 내 2층 식당이 16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월야면에 소재한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이 함평천지한우 등 제철 농·축산물을 활용한 직영 식당을 운영한다.

농가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문을 연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현재 96개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40개 품목

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2층 식당은 298.56㎡ 규모로 1층 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함평 대표 먹거리인 생고기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8시30분까지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 문의. 010-6834-7400

